

주제별 분류사전 편찬기술방법 연구
 - 독일 Bonn 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 한독/독한 사전
 편찬사업¹⁾을 중심으로

이해욱 (부산외대)

1. 들어가는 말

사전 편찬학 Lexikographie이란 학문은 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Wiegand 중심으로) 언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독/독한 사전 편찬사업 역시 한국 내 독어독문학의 발전과 A. Eckerdt와 구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내 한국학의 성장에 힘입어 그 동안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에 나와있는 한독/독한 사전들은 사전편찬 작업 시 다음과 같은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사전 편찬은 그 사전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에 따라 그 사전만이 가지는 특정 목표가 설정된 후, 이를 기본 틀로 구체적인 편찬계획, 과정,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작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전편찬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온 탓에 사전구조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불필요한 표제어의 선택,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예들의 인용, 뜻풀이의 부정확함, 문체가 매끄럽지 않은 독일어 예문 제시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다수 초래되었다.

언어구조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사전은 이들 외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우려는 언어

1) 독일 Bonn 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 한독/독한 사전 편찬 위원: A. Huwe(위원장), 이해욱, 성상환, S. Ganter, E. Golchert, 김향-Hölzlein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편찬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학습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독일 Bonn 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는 탄탄한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번역가 양성을 주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 4학기 동안은 학생들에게 언어학습을 위주로 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전이란 학습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무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는 오래 전부터 이들 미래의 전문 번역가들에게 그리고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혹은 한국에서 독일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좋은 사전을 편찬해 제공하려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삼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작업은 특히 2년 전부터 본 과도에 진입했으며 이미 3,000개 (약 3분의 1 완성) 단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우선 현재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에서 진행중인 한독/독한 분류 사전편찬방법을 소개하며, 이 사전이 한국어/독일어 학습자들을 위한 주제별 분류사전(Wörterbuch nach Sachgruppen)인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인 분류체계Systematik 연구에 핵심 목표를 둔다. 시중에 나와있는 몇 가지 분류사전들을 선택하여 이들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이 사전의 분류체계의 합법성과 논리성을 비교 검토하고 논의한다.

2. 기 출판된 한독/독한 사전의 문제점

기존에 나와 있는 사전류를 보면 대부분이 독한 사전이며 한독 사전은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전편찬의 불균형 현상은 아마도 사전 집필을 대부분이 한국 독어 독문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전의 대부분이 독일어 학습자를 고려한 것이며, 특히 독일어나 한국어 학습자 모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한독사전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표적인 한독사전으로는 엡센스 한독사전(민중서림 1982)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독일 양국의 정부 재단의 지원으로 10여 년의 작업의 완성이며, 전국 각 대학의 독어독문학 교수진이 총동원되어 집필된 사전이다. 이 사전은 풍부한 어휘 수록과 다양한 예문 등으로 독어독문학도의 필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 이 사전을 사용하다 보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가 하면 뜻풀이도 잘못 되어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제어 선택:

“가납사니: Schwätzer, Händelsucher, Zungenfertige”(12쪽); “늘음치래기: ein Gegenstand, der eingeht und sich ausdehnt, ein elastischer Gegenstand”(397쪽); “후더침(後-): Komplikationen im Wochenbett”(2057쪽)

2) 표제어의 기본 語義가 명확하지 않다:

“속도 速度: Schnelligkeit, Geschwindigkeit”(1055쪽)에서 속도의 독일어 기본의미는 Geschwindigkeit임으로 맨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3) 표제어의 잘못된 번역:

- “오세아니아: Ozean”(1315쪽) → Ozeanien이 맞음
- “미생물: Mikrobie”(732쪽) → Mikrobe, Mikroorganismus가 맞음

4) 예제의 잘못된 표현:

“방이 어수선하다: Das Zimmer ist wirrig”; “책상을 어수선하게 하지 말라: Mache doch nicht den Tisch wirr! Störe den Tisch nicht!” (1238쪽)

이와 같은 점은 학습과정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동기 저하까지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특정

표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표제어의 학습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표제어에 여러 독일어의 의미가 있을 때 맥락에 맞는 기본 의미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특정 언어학습 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입장의 새로운 한독/독한 사전의 편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에서는 이 작업을 시작하였다.

3. Bonn 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 한독/독한 사전편찬계획 및 편찬원칙

3.1 편찬계획

H. Henne (1980:782f)의 안을 근거로 하여 이 사전편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 편찬 안을 다음의 4영역으로 분류하여 계획한다.

(1) 사전편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사전은 중요한 필서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독일어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한독사전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학습현장에서 학습자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의 고충이 심하다. 따라서 독일 Bonn 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에서는 독일어/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사전을 편찬하며, 이를 경우에 따라 수업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사전편찬의 주요 목적이다.

(2) 사용자 규정

사전 사용자 범위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초급, 중급 학습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효과의 효율성을 위해 주제 분류를 통해 어휘 및 예문들을 소개하고, 각 언어의 어휘들은 모두 알파벳순으로 index에 다시 소개한다.

뜻풀이의 정확성과 학습자의 편리함 내지는 학습의 효율성을 본 사전편찬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이는 결국 사전의 layout 및 Makro- Mikro구조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기본 어휘Grundwortschatz를 3,000개로 규정하여 이를 (*)로 따로 표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7,000개의 단어(aufbauende Wortschatz)는 중급 학습자를 목표로 설정한다. 또한 본 한독/독한 사전은 전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언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두 언어권의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특정 어휘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주제별 분류체계규정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사전의 규모 및 편찬작업기간 (표제어 수, 이에 따른 편찬작업 기간) 이 사전의 한국어 언어자료는 다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 (a) 으뜸 국어사전. 민중서림 1999:2판.
- (b) 일본어 단어 6000. 홍신문화사 1995.
- (c) 서상규.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1차년도 교과보고서: 제1 세부과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선정. 문화관광부 1998.
- (d) 조선 빈도수 사전. 평양 1993 (서울: 한국문화사 1994)
- (e) 이상억. Basic Korean Dictionary: Korean-English/English-Korean: 외국인용 위한 기초 한국어 사전. 문화체육부 1995.
- (f) B. Lewin, T. Kim.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Hamburg 1997.

독일어 언어자료는 Mannheimer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에서 제공된 자료를 비롯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 (a) Gerhard Wahrig. Deutsches Wörterbuch. Gütersloh 1997.
- (b)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acht Bänden. Günther Drosdowski (hrsg.). Mannheim 1993-1995 (2. Aufl.)
- (c) Franz Dornseiff. Der deutsche Wortschatz nach Sachgruppen. Berlin 1970.

표제어의 수는 양 언어 각각 10,000개, 총 20,000개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편찬 작업기간은 앞으로 약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 Wiegand (1998:4ff)는 사전정보관리방법을 정보시초파일, 정보중간파일 그리고 정보완성파일로 구분하는데, 이 사전 편찬작업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초파일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현재 정보 중간파일 작업이 진행 중이다.

(4) 편집자의 임무와 분담

이 사전편찬은 양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로 구성된 언어학자들의 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표제어풀이(Lemmaerklärung)의 정확성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사전편찬 위원들의 다짐이 담겨있다. 기존에 나와있는 사전들의 대부분이 한 언어의 학자들 중심으로 편찬돼 이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편찬작업(a-f)과 작업단계(g-l)는 다음과 같다.

- (a)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각각 10,000개의 표제어 설정을 목표로 표제어 선정 및 수정작업
- (b) 양 언어의 표제어 설명
- (c) 주제별 분류체계 설정
- (d)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표제어 분류
- (e) 표제어가 여러 주제영역에 속할 경우 참조 → 표시로 제시
- (f) 한국어와 독일어의 색인(Wortindex) 작업
- (g) 한국어 표제어 풀이 작업 (한→독)
- (h) 표제어 풀이(한→독/ 독→한) 전반에 관한 논의; 해당 표제어에 관련된 예문, 속어 등의 부가설명
- (i) 한국어 표제어를 분류체제로 구분
- (j) 어휘 색인 작업
- (k) 빈도 수에 따른 10,000개의 어휘를 최종적으로 조정

(1) 출판 준비

3.2 편찬원칙

이 사전작업은 다음의 편찬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 (1) 편찬위원: 독일 한국학자, 한국 독어학자
- (2) 사전 사용자: 독일어와 한국어 학습자
- (3) 사전의 규모: 어휘의 수는 언어별 (독일어, 한국어)로 각각 10,000개이며 특별히 좋고 나쁜 단어를 구분하여 선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중에서 3,000개의 기본 어휘를 선정해 어휘 위에 *로 표시한다.
- (4) 어휘선정: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어휘를 선정한다.
- (5) 사전의 시대적 구분: 현대 사전
- (6) 정확성: 사전기획의 정확성을 위해 각 언어 모국어 화자들이 공동작업 한다. 또한 어휘를 예제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을 시도한다.
- (7) 표제어의 미시구조:
 - a. 한국어 표제어 (한자)
 - b. 파생어, 관련어
 - c. 품사 (한국어의 경우)
 - d. 관사 (독일어의 경우)
 - e. 수 단위(Zählwörter)
 - f. 예제 Beispielsätze
 - g. 참조 Verweis
 - h. 한국어 표제어 색인
 - i. 독일어 표제어 색인
- (8) 출판형태: 서적 (경우에 따라 CD-ROM)

3.3 한독/독한 편찬 시 제기되는 문제점

이상에서 제시된 안에 의해 사전편찬작업을 진행시키되, 한국어와 독일

어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따로 분리시켜, 개별적 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전작업의 기초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독일내 한국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1) 양국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 양국 문화소의 중요성: 양 문화권에서 중요한 문화소를 모두 다룬다.
예: 성-Schloß, Burg; 기사-Ritter; 궁궐-Palastanlage; 성곽-Festung;
산성-Bergfeste
- * 1 대 1 번역 불가능한 어휘는 풀어 설명:
예: 단지-kleines bauchiges Aufbewahrungsgefäß 낙관-Signierstempel
eines Künstlers
- * 친족관계: 도표로 관계를 표시한다.

2) 언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 의성어/의태어 Onomatopoeica: 한국어는 독일어 보다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다. 본 사전에서는 빈도 수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의성어, 의태어들만 선정하여 수록한다.
- * 색깔표시: 한국어는 독일어 보다 색깔 관련 어휘가 풍부하며, 색깔표시가 다양하다. 본 사전에서는 빈도 수에 따라 선정하여 수록한다.
예: blau: 푸르다, 파랗다, 푸르죽죽하다, 푸르스름하다(bläulich)
- * 한국어/한자 중 그 한자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모두 선정하여 기입한다.
예: Mutter- 어머니, 모친母親
- * 존칭어도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모두 선택한다.
예: 있다-계시다 등
- * 한국어의 수 단위 Zählwörter는 50개가 넘는 것으로 가정되나 이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만 수록한다.
예: 종이 한 장, 개 한 마리, 연필 한 자루 등

3) 북한 어휘의 도입 문제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어휘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작업 마지막에 검토 예정

4. 주제별 분류사전의 분류체계 연구

이 장에서는 우선 주제별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사전을 선정하여, 이들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Bonn대학교의 한독/독한 사전의 주제분류체계와 비교 검토한다. 이들의 분류체계는 주제범위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 용어의 정확성, 사전 찾기의 효율성의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다.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와 한독/독한 사전의 분류체계 모형은 특히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였으며, 11개의 대 구분 주제항목과 53개의 중구분 그리고 56개의 소 구분(잠정) 주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Britannica, Dornseiff, Klett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검토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Britannica(Chicago/ Toronto 1981)는 영어 백과사전으로 10개의 대구분 항목, 41개의 중구분항목과 127개의 소구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Britannica>

Part One. *Matter and Energy* Part Two. *The Earth* Part Three. *Life on Earth* Part Four. *Human Life* Part Five. *Human Society* Part Six. *Art* Part Seven. *Technology* Part Eight. *Religion* Part Nine. *The History of Mankind* Part Ten. *The Branches of Knowledge*

(중구분 및 소구분 항목은 생략했음)

Dornseiff (Franz Dornseiff. *Der deutsche Wortschatz nach Sachgruppen*. Berlin 1970)는 독일어 주제별 분류사전으로 19개의 대구분 항목과 소구분 항목은 없이 중구분 항목만 무려 910개가 된다.

<Dornseiff: Der deutsche Wörterbuch nach Sachgruppen>

- | | |
|---|---|
| 1. Anorganische Welt. Stoffe | 2. Pflanze. Tier Mensch (Körperliches) |
| 3. Raum. Lage. Form | 4. Größe. Menge. Zahl. Grad |
| 5. Wesen. Beziehung. Geschehnis | 6. Zeit |
| 7. Sichtbarkeit. Licht. Farbe. Schall. Temperatur. Gewicht. Aggregatzustände. Geruch. Geschmack | |
| 8. Ortsveränderung | 9. Wollen und Handeln |
| 10. Sinnesempfindung | 11. Fühlen. Affekte. Charaktereigenschaften |
| 12. Das Denken | 13. Zeichen. Mitteilung. Sprache |
| 14. Schrifttum. Wissenschaft | 15. Kunst |
| 16. Gesellschaft und Gemeinschaft | 17. Geräte. Technik |
| 18. Wirtschaft | 19. Recht. Ethik |
| 20. Religion. Das Übersinnliche | |

(중구분 항목은 생략했음)

Klett (Deutsch-Englisches Wörterbuch. Stuttgart 1977)은 13개의 대구분 항목과 72개의 중구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lett: Deutsch-Englisches Wörterbuch>

- I. Quantität II. Zeit III. Weltall IV. Mensch V. Seelen- und Gefühlsleben VI. Gesellschaft VII. Ordnung VIII. Staatliche Ordnung IX. Wirtschaft X. Verkehr, Reisen XI. Sport XII. Wissenschaft und Schule XIII. Künstliches Schaffen

(중구분 항목은 생략했음)

이들의 분류체계의 평가는 아래의 4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1) 포괄성: 분류체계가 전 주제를 포괄하는가?

2) 논리성: 분류체계가 주제의 상하위 간의 인과관계(Hiearchisierung)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합리적인 범주화(Kategorisierung)가 이루어졌는가? 항목간의 균형성과 일관성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가? 사전 사용자의 인지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특히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a) Oberbegriff → Unterbegriff
- b) auf Voraussetzung aufbauend
- c) grundsätzlich → allgemein (bzw. wichtig → unwichtig)
- d) einfach → komplex
- e) allgemein → speziell
- f) außen → innen
- g) wichtig → unwichtig

- 3) 정확성 : 분류체계의 주제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4) 효율성 : 사전 사용자가 특정 어휘를 찾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분류사전에서 분류체계의 중요성은 방대한 어휘의 양에서 정확한 정보를 사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여과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분류체계의 포괄성은 각 대구분 항목과 중구분 항목의 주제어 수와 주제 범위를 통해 비교되었다. 분석 결과, Britannica와 Dornseiff의 경우가 가장 포괄성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Klett의 경우가 가장 포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ornseiff의 경우, 중구분 항목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사용자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체계의 논리성은 각 사전의 상하위 주제 구분의 인과관계(Hierarchisierung), 합리적인 범주화(Kategorisierung) 그리고 항목간의 균형성과 일관성에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Britannica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lett의 경우 대구분 항목의 제12장과 제13장이 전체적으로 배열상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왜 이들이 맨 뒤에 그것도 Sport 항목 뒤에 나타나는 지가 의문이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중구분 항목에서는 논리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특히 상하위 주제구분의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제5장(Seelen- und Gefühlsleben), 제11장(Sport)

과 제12장(Wissenschaft und Schule)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제5장의 경우, Religion의 항목이 중구분으로 다른 사전에서와는 달리 Seelen- und Gefühlsleben의 대구분 항목에 포함된 것이 주목할만하다.

제11장의 대항목 Sport는 61.Sport와 62.Angeln, Jagen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서로 상하위 항목분류단계에서 위계성이 결여된다. 이는 제12장(대항목: Wissenschaft und Schule)의 중구분항목(63. Geistige und wissenschaftliche Tätigkeit; 64.Philosophie; 65.Geschichte; 66.Literatur; 67.Grammatik; 68.Erziehung,Schule,Unterrich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ornseiff의 경우 논리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대구분 항목간의 위계관계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제8장의 Ortsveränderung이 의미상 제3장(Raum.Lage.Form)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항목으로 설정하여 1.Anorganische Welt, 2. Pflanze, Tier 등과 동일한 위계단계에서 기술되었다는 점, 또한 10장.Sinnesempfindung이 대항목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ühlen, Affekte, Charaktereigenschaften을 제 11장의 대항목으로 따로 분류했다는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중구분 항목의 경우 역시 위계성(Hierarchie) 내지는 범주화(Kategorisierung)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2장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2.1의 Pflanze의 범주에 2.2 Pflanzenarten, 2.3 Pflanzenteile, 2.4 Pflanzenkrankheiten, 2.5 Pflanzenanbau, 2.6 Fruchtbarkeit 등이 하위범주로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위계단계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주화의 혼란은 전 항목에 거의 다 해당된다.

이 문제는 결국 인지적 측면에서 사전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전을 찾는 데 방해를 받기 마련이다.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와 한독/독한 사전편찬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특별히 고심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정확성은 주제어가 사전 이용자의 인지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설정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분석결과, 대부분 주제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Klett의 대구분 항목 제7장인 Ordnung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이에 속한 중구분 항목인 27.Einteilung und Wichtigkeit, 28.Reihenfolge, 29.Vergleich, 30.Ursache, Wirkung, Zusammenhang, 31.Schicksal 등도

Ordnung과의 연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효율성은 사전 이용자가 사전에서 해당 어휘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분석 결과, Dornseiff를 제외하고는 사전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됐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3개의 사전 Britanica, Dornseiff, Klett를 포괄성, 논리성, 정확성, 효율성을 근거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제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주제범위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 용어의 정확성, 사전 찾기의 효율성의 4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연구된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의 한독/독한 사전의 분류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전의 분류체계는 외국어 학습사전인 점을 감안하여 실용적인 면을 특히 고려하여 연구되었다.

이 사전은 11개의 대 구분 주제항목과 53개의 중 구분 그리고 56개의 소 구분(잠정) 주제항목으로 다음(간략)과 같이 구성되었다.

1. Raum, Zeit

1.0 Allgemein 1.1 Raum 1.2 Zeit 1.3 Maß/Zahlen 1.4 Eigenschaften

2. Weltall und Erde

2.0 Allgemein 2.1 Weltall: Galaxis und Sterne 2.2 Himmel: Luftatmosphäre, Wetter, Klima 2.3 Globus (od. Erde) 2.3.1 Land 2.3.1.1 Kontinente 2.3.1.2 Mineralien und Bodenschätze 2.3.2 Meer 2.4 Umwelt 2.4.1 Allgemein 2.4.2 Umweltverschmutzung 2.4.3 Umweltpolitik, Umweltkrankheiten

3. Pflanzen und Tiere

3.0 Allgemein 3.1 Mikroben 3.2 Pflanzen 3.2.1 Allgemein 3.2.2 Pflanzarten 3.2.3 Pflanzenanbau, Pflanzenkrankheiten, Gärtnerei 3.3 Tiere 3.3.1 Allgemein 3.3.2 Tierarten 3.3.3 Tierkrankheiten, Tierzucht

4. Mensch

4.0 Allgemein 4.1 Körper, Körperteile 4.1.1 Organe 4.1.2 Fünf Sinne 4.1.3 Bewegung 4.2 Gesundheit/Krankheit 4.3 Gefühl (s.a. 8.3 Zwischenmenschl. Bez.) 4.4 Denken 4.5 Sprache

5. Kleidung, Nahrung, Wohnen

5.0 Allgemein 5.1 Kleidung 5.1.0 Allgemein 5.1.1 Textilien 5.1.2 Handarbeit 5.1.3 Kleidungsart 5.2 Nahrung 5.2.0 Allgemein 5.2.1 Lebensmittel 5.3 Wohnen 5.3.0 Allgemein 5.3.1 Wohnung 5.3.2 Inneneinrichtungen

6. Religion, Brauchtum, Feste, Spiele

6.0 Allgemein 6.1 Religion 6.1.1 Christentum 6.1.2 Buddhismus 6.1.3 Konfuzianismus 6.1.4 Schamanismus 6.1.5 Sonstiges 6.2 Brauchtum 6.3 Fest und Feiertage

7. Bildung, Wissenschaft, Kunst

7.0 Allgemein 7.1 Bildung 7.2 Wissenschaft 7.3 Kunst

8. Individuum und Gesellschaft

8.0 Allgemein 8.1 Individuum 8.2 Familie 8.3 Zwischenmenschliche Beziehung (s.a. 4.3 Gefühle) 8.4 Verwandtschaft 8.5 Staat 8.5.1 Legislative 8.5.2 Exekutive 8.5.3 Judikative 8.6 Internationale Beziehungen 8.6.1 Internationale Einrichtungen

9. Wirtschaft, Industrie und Technik

9.0 Allgemein 9.1 Volkswirtschaft 9.2 Industrie 9.3 Technik 9.4 Dienstleistung

10. Verkehr und Telekommunikation

10.0 Allgemein 10.1 Verkehr 10.1.1 Land 10.1.2 Wasser 10.1.3 Luft 10.2 Reise 10.3 Massenmedien 10.4 Post- und Fernmeldewesen 10.5 Neue Medien

11. Sport, Freizeit

11.0 Allgemein 11.1 Sport 11.2 Freizeit, Hobby

이 사전의 분류체계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주제항목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이 사전이 문화의 차이가 있는 두 언어를 취급하므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주제선정에 신경을 썼으며, 최근 IT산업과 관련된 기본 어휘도 포함시키기 위해 10.5 Neue Medien이라는 항목도 도입했다.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논리적인, 즉 사전 이용자가 인지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성립하였다.

이때 대구분 항목, 중·소 구분 항목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즉, 대구분 항목은 위의 항목중 (b) auf Voraussetzung aufbauend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으며, 중·소구분 항목은 (a)Oberbegriff → Unterbegriff (e)allgemein → speziell, 소구분 항목은 c) einfach → komplex, e) außen → innen, f) wichtig → unwichtig에 근거하여 설정하

었다.

이 사전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우선 현재 독일 Bonn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에서 진행중인 한독/독한 분류 사전편찬방법, 즉 편찬 계획 및 편찬원칙을 소개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몇 가지 분류사전들을 선택하여 이들의 분류체계를 포괄성, 논리성,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된 한독/독한 사전의 분류체계를 소개하고 논의해 보았다. 결국 이 사전을 사용하는 독일어 혹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능력과 일상상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정확하게 특정 어휘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본 사전편찬 참여자들의 최대 목표이다.

참고문헌

- 서상규 (1998):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1차년도 교과 보고서: 제1 세부과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선정. 문화관광부.
 엡센스 한독사전(1982): 한국 독어독문학회. 민중서림.
 으뜸 국어사전(1999): 민중서림.
 이상섭 (1990):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3집. 탑출판사.
 이상억(1995): Basic Korean Dictionary: Korean-English/English-Korean: 외국인용 위한 기초 한국어 사전. 문화체육부.
 일본어 단어 6000 (1995): 홍신문화사.
 조선 빈도수 사전 (1993): 평양 (서울: 한국문화사 1994).

Britannica (1981): Encyclopaedia Britannica Chicago/ Toronto

Dornseiff,F.(1970): Der deutsche Wortschatz nach Sachgruppen. Berlin

- Duden(1995):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acht Bänden. Günther Drosdowski (hrsg.). Mannheim
- Eckardt, A. (1971): Wörterbuch der Koreanisch-Deutschen Sprache. Heidelberg
- Henne, H. (1980): Lexikographie.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Althaus, Henne, Wiegand (hrsg.). Tübingen
- Huwe, A. (im Druck): Koreanische Sprache und Lexikographie Wörterbuchprojekt an der Universität Bonn“, -Das Deutsch-Koreanisch /Koreanisch-DeutscheTagungsband des III. Ost-West-Kolloquiums für Sprachwissenschaft, Berlin
- Klett (1977): Deutsch-Englisches Wörterbuch. Stuttgart
- Kuh, Kih-Seong (1988): Koreanisch-Deutsches Wörterbuch. Bonn-Bad Godesberg.
- Lewin, B. & T. Kim(1997):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Hamburg
- Nickolaus, G. (1967): Grund- und Aufbauwortschatz. Französisch
- Wahrig (1997): Deutsches Wörterbuch. Gütersloh
- Weiserger (1973):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 Düsseldorf
- Wehrle-Eggers, S. (1961): Deutscher Wortschatz. Ein Wegweiser zum treffenden Ausdruck. Stuttgart
- Wiegand, H.E. (1998): Wörterbuchforschung: 1.Teilband. Berlin
- Zaiping, P. & H.E. Wiegand (1987): Konzeption für das große Deutsch-Chinesische Wörterbuch. Lexikographie 3

Zusammenfassung

Konzeption für das Koreanisch-Deutsche/ Deutsch-Koreanische Wörterbuch - Wörterbuchprojekt an der Universität Bonn -

Lee, Hae-Wook(PUFS)

Die Wörterbücher spielen beim Erwerb einer Sprache eine wesentliche Rolle. Es gibt inzwischen mehrere Deutsch-Koreanische Wörterbücher. Die Lage für die

Koreanisch-Deutschen Wörterbücher ist aber verbesserungs- bedürftig.

Stellvertretend für das Koreanisch/Deutsche Wörterbuch steht das 1981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nach zehnjähriger Arbeit fertiggestellte *Essence Koreanisch-Deutsche Wörterbuch* (Minjung seorim 1982).

Dieses Wörterbuch weist aber einige Nachteile auf. Es fehlen jegliche Angaben zum Korpus. Man stößt beispielsweise oft auf selten gebrauchte Wörter, die Grundbedeutungen sind nicht erkennbar, die Erklärungen sind ungenau, manchmal sogar irreführend und schließlich mitunter stilistisch falsch.

Diese negativen Punkte wirken sich ungünstig auf den gesamten Lernprozess bis hin zur Lernmotivation aus. Aus diesen Gegebenheiten erwächst die Notwendigkeit der Erstellung eines neuen Wörterbuchs, das auf die Situation von Sprachlernern abgestimmt ist, die zur Benutzung einsprachiger Wörterbücher noch nicht imstande sind. Zweck des Wörterbuchs ist der Einsatz im Fremdsprachenunterricht, woraus sich ein zweisprachiges Wörterbuch ergibt.

Als Benutzerkreis werden insbesondere Sprachlernanfänger des Koreanischen und Deutschen ins Auge gefasst. Ihnen soll ein Nachschlagewerk an die Hand gegeben werden, das den koreanischen und deutschen Wortschatz anhand einer Systematik und eines alphabetischen Indexes der jeweiligen Sprache erschließt.

Als Zahl der Lemmata wird für jede Sprache ca. 10.000 festgelegt. Ein Grundwortschatz, der die 3000 häufigsten Wörter umfasst wird extra markiert. Darüber hinaus bietet das Wörterbuch den darauf aufbauende Wortschatz von weiteren 7000 Wörtern.

Die Teamarbeit der beiden Gruppen von Muttersprachlern steht in allen Arbeitsschritten im Vordergrund. Der damit verbundene Zweck ist die Erzielung der maximalen Genauigkeit der Lemmaerklärungen.

Da dieses Wörterbuch ein Wörterbuch nach Sachgruppen ist, ist die Erstellung einer Systematik von großer Bedeutung. Für das vorliegende Projekt galt daher eine Systematik zu finden, die nicht nur leicht nachvollziehbar, also praktikabel ist, sondern insbesondere von Benutzern aus zwei Kulturkreisen akzeptiert werden kann. Als grundsätzliche, allerdings nicht in allen Bereichen gleichermaßen anwendbare Ordnungsprinzipien gelten: Vom Oberbegriff zum Unterbegriff, vom allgemein zum speziell, vom Einfach zum Komplexen, von außen nach innen, Darin spiegelt sich das Prinzip der 'notwendigen Bedingung' wider.